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style silhouette. But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Athens.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Greeks and Romans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a practice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a fixed point of view,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 the exploration of shadows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has evolved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 geometric: 기하학의

- ①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
- ②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 ③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
- ④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 ⑤ Unique Views on Shadows: From Cave Artists to Romans

24. [출제 의도] 제목 추론

[해석]

무려 3만 2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 동굴 예술가들은 자신의 말과 들소 그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모형화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그 이후 고대 그리스 예술은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 형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는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아테네에서 등장한다. 고전 저술가들이 예술 자체가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그림자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표현의 확고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난 이후였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최초로 그림자를 모형화하는 방식에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일관된 광원, 고정된 시점, 기하학적 투영에 대한 이해를 함축하는 관행이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즉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 그림자에 관해 탐구하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이후로 예술가와 이론가가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벌임에 따라 그림자를 묘사하는 방식은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풀이]

예술에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선사시대의 동굴 속 벽화에서부터 고대 이집트와 그 이후 고대 그리스를 거쳐 아테네와 로마에 이르러서 모형화하는 것에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계속 발전해 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사시대 동굴에서 이어져 온 예술 속 그림자의 여정’이다.

- ② 예술적 관점에서 본 사람 그림자의 묘사
- ③ 현대 예술의 핵심 요소로 그림자 표현하기
- ④ 그림자 화가에게 주요 과제란 무엇인가?
- ⑤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 동굴 예술가부터 로마인까지

[Words and Phrases]

prehistoric 선사시대의 silhouette 실루엣, 그림자 그림 cast shadows 그림자 드리우기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tracing 모사, 투사 transition 전환, 이행, 변천 theoretician 이론가 ongoing 지속적인